

발 간 사

불교신문이 지령 3000호를 맞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독자와 만난지 54년 만에 3천 번째 신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 호 한 호를 제작할 때마다 ‘부처님을 만나는 다리’라는 심정으로 임했으니, 3천 번째 다리를 놓은 셈입니다.

<잡아함>에 이르기를, 눈 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 번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다 나무 구멍에 맞추어 머리를 내놓는 일 만큼이나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부처님의 미묘한 가르침은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처럼 어렵고 헤아릴 수 없는 먼 시간을 지나 사람 몸 받고 부처님 법까지 만난 분들이니,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신문은 이처럼 귀하고 어려운 불법과 인연 맺는 역할을 부여받아 쉽없이 달려왔습니다. 불교신문을 창간하셨고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호국불교의 참 정신을 실천하신 청담스님, 수행자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었던 벽안스님,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았던 성철스님, 미국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하신 송산스님, 무소유의 삶으로 국민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법정스님, 우리의 허상을 여지없이 꿰뚫면서 설악보다 넓고 큰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무산스님 등, 이루 말할 없는 선지식들이 불교신문을 빛나게 했습니다. 고은, 김지하, 조정래 선생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 또한 불교신문을 빛낸 보석들입니다.

지령 3000호를 맞아 불교신문 발행인으로서 반세기 넘는 긴 시간동안 불교신문에 할과 방으로써 무지를 일깨워주시고,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글로써 마음을 맑게 해주신 수많은 필자들과 어려울 때 불교신문 한부를 구독해서 용기를 심어주신 독자님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인연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신문은 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만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과 길이 있지만 진리의 길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본래 맑고 깨끗하며 자체로서 귀한 존재이므로, 서로 아끼고 베풀며 사랑해야한다는 가르침만이 올바른 진리임을 불교신문은 한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쟁이 아닌 공존을, 다툼이 아닌 화합을,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탐욕이 아닌 자비를 말하고 실천하는 신문이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신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포교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땅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한 불국토를 만드는 보살의 공덕을 쌓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다 해도 보살의 원력을 내지 않으면, 이 또한 한줄기 햇살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에 불과할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복을 베푸는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 한량없는 공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4월 불교신문 지령 3000호를 맞아